

##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준비

선재하신 예수님  
물로 포도주 만드심

1장  
2장

① 표적

##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메시지/사역

사역 준비	3장
신하의 아들 고치심	4장
베데스다 병자 치유	5장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① 나는-이다
오병이어/물위를 걸으심 (35, 48, 51) 생명의 떡	6장 ④⑤ 표적 ② 나는-이다
(12/9:5) 세상의 빛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치유	7장
양의 문문 (11, 14) 선한목자	8장 ③ 나는-이다
나사로를 살리심 부활, 생명	9장 ⑥ 표적
예루살렘으로	10장 ④ 나는-이다
	11장 ⑤ 나는-이다
	⑦ 표적
	⑥ 나는-이다
	12장

##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부활

수난예고, 발을 씻기심	13장
길, 진리, 생명	14장 ⑦ 나는-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15장 ⑧ 나는-이다
성령의 일	16장
대제사장적 기도	17장
잡히심, 심문 ‘내가 그니라/왕이니라’	18장 ⑨ 나는-이다
십자가, 죽음, 장사	19장
가장 위대한 표적 부활	20장 ③ 표적
내 양을 먹이라	21장

요한  
복음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2020 사순절 드라마바이블 0330 6번째 |  
요한복음 18-21장

## 주요본문

요 19:30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 11:25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세푸스는 십자가 처형을 ‘죽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키케로는 ‘가장 잔인하고 역겨운 형벌, 적합한 말이 하나도 없기에 어떤 말로도  
도저히 묘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네카는 “만일 당신이 붙잡혀  
십자가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차라리 자결하는 게 낫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로마 당국은 잔인한 만큼 ‘효과’가 좋은 십자가형을 800년 간 시행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주요 도로 가에 십자가를 세워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십자가형의 목적은 가장 오랫동안 최고의 고통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살이 찢기는 채찍질과 손발에 못이  
박히는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이 꼽는 십자가형의 사인은 죄수들이  
얼마나 긴 시간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는지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다 출혈로 인한 울혈성 심부전증, 출혈과 탈수현상, 질식사, 저혈량성 쇼크 등.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기에 그 고통을 온 몸으로 겪으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19:28).”

예수님이 느끼신 고통은 육신적 요소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형틀은 보통 높지 않은 곳에 세워졌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를 수 있을 만한 높이였습니다(19:34). 어머니 마리아와 병사들,  
모욕하던 사람들이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롱의 말들, 멸시의 눈초리, 천대의 몸짓을 십자가에서 모두 받아 내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11:6).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였습니다(17절).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21절).”

예수님은 나사로와 자매들을 사랑하셨음에도 바로 가시지 않습니다(3, 5절).

그들이 버림받은 시간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나흘’은 모든 소망을 접어야 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의 부패가 시작되고 ‘죽음’을 인정해야만 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질병과 죽음, 사탄의 권세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절망과 어둠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삶에도 손 쓸 수 없는 영혼과 육신의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것을 먼저 겪으셨습니다.

몸이 찢기는 죽음의 실제, 육신의 고통과 신음, 버림받음, 단절, 할 수 있으나 할 수 없음, 억울함, 무력함.

예수님은 그분의 때가 되었을 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42절).”

죽음의 권세 절정에서 나사로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파멸과 분해, 부패의 과정에서도 주님은 주도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불가능함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15절).”

예수님의 구원은 단순한 ‘행복’을 넘어서 충만한 ‘평안’입니다. 표면적 해결이 아니라 근본적 해결입니다.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막으시는 손길을 느낀다면, 하나님이 그만큼 가까이 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예수님도 사랑하는 나사로와 자매들을 위해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다 이루십니다(5:28, 19:30).’

사탄과 어둠이 승리한 듯 보이지만(롬5:17), 예수님은 단 한 순간도 통제권을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를 내께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10:17).”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complete, 4:34).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는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17:4).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언된 방식대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아버지의 구속을 다 이루셨습니다(19:29, 33).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대로 부활하셨습니다(20장).

나사로를 살리신 것,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며, 물에 생명을 주셨습니다(표적❶).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영적 삶을 제공하셨으며,

다시는 목마름 없는 생수(성령)로 우리 삶에 생명을 불어 넣으십니다.

육신의 떡과 생명의 떡을 주심으로 영생을 맛보게 하십니다(표적❷❸).

또한 소년과 38년 된 병자의 삶에 생명을, 날 때부터 맹인 된 자에게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표적❹❺❻).

예수님은 양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며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을(life of the age, 시대의 생명) 주시는 분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의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모든 것의 통제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진정한 왕, 하나님 나라의 왕 이십니다(18:33-37, 17:1).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관식을 치르시고 왕에 걸 맞는 장례를 치르셨습니다(19:19, 39 몰약과 침향 약 34kg).

죽음을 이기고 승리 하셨습니다.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13:1, 3, 16:5, 17, 28).

영생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3:3).”

죽음은 포기와 고통이 아니라 영생과 부활의 시작입니다.

‘죽는 것’은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2:20).”

\* 세상을 바꾼 24시간(kmc), 복음서들의 신학(한들출판사), IVP BST 주석, 두란노 How, WBC주석